메이지(明治) 초기 영국인이 본 일본과 한국
-조지 커즌, 새비지 랜도어, 이자벨라 비숍을 중심으로-

김보림*
kimbr@cbnu.ac.kr

<目次>

1. 들어가며
2. 19세기 말 서양인의 동양 인식
3. 영국인의 일본과 한국 인식
4.1 정치와 군사제도
4.2 거리와 위생
4.3 여성
4.4 식생활
4.5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외인식
4. 영국인 인식 속의 오리엔탈리즘
5. 마치며

主題語: 메이지 초기(In the early Meiji Period), 영국인(English), 일본 인식(Perception on Japan), 조지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 새비지 랜도어(Arnold Henry Savage Landor), 이자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

1. 들어가며

19세기말 세계는 자본주의 상승 단계에 처해 있었다. 이 시기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었다. 특히 영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였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영국의 공업생산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영국이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동양 사회에 눈을 돌리게 된 경제적 이유로 신속한 생산의 확대에 따라 생산 과잉의 위기를 들 수 있다. 계속된 경제 위기의 위협 하에서 영국의 방직공업 자본가들은 절박하게 국외 시장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들의 '과잉' 생산품의 판매 출로를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1)]

일본은 영국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개항 직후 일본을 찾은 영국인들은 탐험가, 외교관, 선교사, 교육자 등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입국 목적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그들 중에는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방문하고, 양국에 대한 저서를 남긴 영국인들이 있었다.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박지동(1999)「英・美・日의 아시아 침탈과 민중 학살사 재고찰」『社會科學硏究』9, pp.232-233

메이지(明治) 초기에 도래한 서양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 박지향과 같이 서양, 특히 영국의 제국주의에 착목하여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의 오리엔탈리즘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근대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이다.[2] 가령 조선인을 '게으르다', '불결하다' 등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경우 그 밑바탕에는 서구인의 아시아에 대한 우월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 대한 관념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동양에 대한 이러한 서양의 사고 또는 지배 방식을 소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한다. [3]둘째, 정연태와 김태웅은 당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직업이나 체류기간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이들의 인식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영국인 이자벨라 비숍의 경우, 장기간 방문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멸시'가 '애정'어린 시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4]

당시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인으로는 조지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 새비지 랜도어(Arnold Henry Savage Landor), 이자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5]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표 1> 메이지 초기 일본을 방문한 3인의 영국인

	조지 커즌 (George Nathaniel Curzon)	새비지 랜도어 (Arnold Henry Savage Landor)	이자벨라 비숍 (Isabella Bird Bishop)
생몰 연도	1859-1925	1865-1924	1831-1904
국적	영국	영국	영국
직업	외교관	문필가, 화가, 여행가	여행가, 탐험가
한국방문기간	1887-88, 1892-93	1887, 1890	1894~1898[6]
일본방문기간	1887-88, 1892-93	1891	1878

2) 박지향(2003)『일그러진 근대:100년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푸른역사
박지향(2001)「'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안과 밖』10, 영미문화연구회

3)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1991)『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p.48

4) 정연태(1999)「19세기 후반 20세기초 서양인의 한국관-상대적 정체성론・정치사회 부패론・타율적 개혁불가피론-」『역사와 현실』34, 김태웅(2003)「[서평] 박지향, 서평: 박지향의 일그러진 근대 : 100년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歷史學報』180, 푸른역사, p.334

5) I.B. Bishop 저・이인화 역, p.109, p.522 참조

6) 비숍은 1894년 2월 하순부터 1897년 1월 하순까지 한국을 모두 네 번 방문하였으며 체재 기간은 모두 합쳐 11개월간이었다. (왕한석(1999)「개항기 서양인이 본 한국문화: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4, p.3)

7) G.N.Curzon 著, 라종일 譯(1996)『백년 전의 여행 백년 후의 교훈』(*Problems of the Far East*, 1894), 비봉출

한국과 일본 관련 기록물	*Problems of the Far East*, London and New York: Longmans, Green, 1894[7]	*Corea or Cho-sen:The Land of Morning Calm,* London: William Heinemann, 1895[8]	*Korea and her Neighbors,* New York, Chicago: F. H. Revell company, 1898[9]
		Alone with the hairy Ainu: Or, 3800 miles on a pack saddle in Yezo and a cruise to the Kurile islands, London : John Murray, 1893	*Unbeaten Tracks in Japan,* London:Heron Books, 1880[10]

이들 3인은 직업이 모두 달랐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을 방문한 영국인이었고 1890년대에 책을 출판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 저서와 기록물 중 많은 부분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양국을 비슷한 시기에 오갔던 이들이 남긴 기록에서 이들의 두 문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조지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은 1859년 영국의 유서 깊은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 뒤 옥스퍼드대학의 총장과 영국의 외무대신을 역임하기도 했다. 1925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조국인 영 제국의 열렬한 선봉자로, 자신의 모든 의견을 제국주의적 태도에 기초하여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다.[11]

전반적으로 일본에 관해서 그는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하며 일본의 장래가 밝다고 진단하고, 머지않아 서방 열강과 같은 수준의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동아시아의 영국'이 되리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한국에 관한 그의 관찰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는 무기력한 사람들과 더러운 거리,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조선은 홀로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쇠약하고 부패하였으므로 당분간 적어도 중국에 의지하여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한다.

새비지 랜도어(Arnold Henry Savage Landor)는 파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는 미지의 세계를

판사

8) A.H.Savage-Landor 著, 신복룡 譯(1999)『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The Land of Morning Calm, London: William Heinemann, 1895), 집문당

9) I.B. Bishop 著, 이인화 譯(1994)『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 1898), 집문당

10) 두 개의 일본어 번역본이 있다. イザベラ・バード 著, 高梨健吉 譯(1973)『日本奥地紀行』東京:東洋文庫, 平凡社, イザベラ・バード 著, 時岡啓子 訳(2008)『イザベラ・バードの日本紀行』講談社学術文庫

11) 역자 서문 참조.(G.N.Curzon 著, 라종일 譯(1996)『백년전의 여행 백년 후의 교훈』(Problems of the Far East, 1894), 비봉출판사.)

보고 싶어 극동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들어왔다. 그는 두 번에 걸쳐 조선에 왔는데 1890년 연말에 서울에서 몇 개월 지낸 것이 두 번째 방문 때였다.[12] 한국에 관한 그의 저술은 조선 사람들과 문화를 미개, 야만으로만 보던 당시 서양인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조선과 조선 사람들 그리고 풍습에 대해 담담하고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13]

비숍은 1831년 10월 15일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적 가정교육을 받았다. 몸이 늘 허약하여 의사는 그녀에게 장기 선박 여행을 권유하였다. 그녀가 처음 찾아간 곳은 캐나다와 북미주였다.(1854) 이후 1878년 6月에 상륙하여、닛코우(日光)・야마가타(山形)・아키타(秋田)를 거쳐 홋카이도(北海道)로 건너가 아이누족들의 촌락을 조사하였다. 이후 1894년 2월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미 그녀의 나이 63세였다. 그녀는 1897년까지 극동에 머물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장기체류를 하였다. 한국의 이 시기는 갑오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사변 등 한말의 사건들이 있었기에 그녀의 저술이 그 시대 연구의 일차 자료가 될 수 있다.

비숍은 조선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 서울의 외국단체, 관공서, 재외공관, 통상 관련기관 등에 보관된 자료들을 이용하였고, 또한 많은 조선 주재 외국인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숍의 조선에 관한 이해는 그녀가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격동기의 조선에 거주했던 많은 서구인들의 인식도 반영한 것이다.[14]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첫 방문은 새비지 랜도어(1887, 1890 두차례), 조지 커즌(1887-88, 1892 두차례), 이자벨라 비숍(1894-1898 네차례) 순이다.

일본의 첫 방문은 이자벨라 비숍(1878), 조지 커즌(1887-88, 1892-93 두차례), 새비지 랜도어(1891) 순이다. 이자벨라 비숍의 일본 첫 방문이 1878년으로 이른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 재방문까지 포함하여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에 몰려있다. 이들의 저서는 모두 이자벨라 비숍의 일본 관련 저서 『*Unbeaten Tracks in Japan*(1880)』를 제외하고는 1890년대 초반에 출판이 되었으므로 책 속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들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12) A.H.Savage-Landor 著, 신복룡 譯(1999)『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The Land of Morning Calm, London : William Heinemann, 1895), 집문당, pp.8-9

13) 어떤 예기치 못했던 일로 한 사람이 자신의 집과 가구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잃었을 때는 언제나 조선 사람들은 좀처럼 재난과 빈곤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흔히 더 문명화된 국가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친구들은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A.H.Savage-Landor 著(1999), 신복룡 譯, 앞의 책, p.242)

14) 金喜永(2007), 앞의 글, p.168

이들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양국을 방문한 목적, 시기 등 다양한 변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 개인의 기록에도 사항에 따라 일본과 한국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함께 묘사되어 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식이 분화되는 모습도 보인다.[15] 따라서 이들 세 사람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조적인 오리엔탈리즘의 구축 장면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국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외교관으로서 동양 사회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영국 제국주의에 협조하려는 조지 커즌의 직업적 특성은 말할 것도 없이, 새비지 랜도어나 이자벨라 비숍과 같이 당대 이름있는 여행가로서 여행기를 통해 미지의 동양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영국의 제국주의를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각과 저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개항기를 전후한 서양인들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 양국을 오갔던 서양인, 제 3자의 시각을 통해 개항기 일본과 한국의 모습을 보다 체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느꼈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영국인들이 가졌던 오리엔탈리즘의 특징과 이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다양한 여행자들의 기록들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의 틀은 당시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팽배하던 오리엔탈리즘의 시대적 조류를 벗어나기는 힘들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양국에 대한 비교가 당시 자신 또는 자국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어느 한 시각만을 견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정치와 군사제도, 거리와 위생, 여성, 식생활,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외인식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영국인 3인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경제영역, 예술영역, 의식주영역, 도덕·관습·법 영역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지면의 한계상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15) 한국관의 중심기조는 한국 경험과 이해의 깊이, 일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서양인의 한국 인식은 편차를 보였다. 한국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서양인들은 상대적으로 한국민과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신뢰하거나 일본의 보호국화를 반대하는 편에 가까웠다. 반면 한국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본을 통하여 한국에 접근했던 서양인일수록 한국 사회의 절대적 정체와 민족성 타락을 강조하거나 일본의 보호국화를 옹호하는 입장에 더 다가서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 편차도 크지 않았다.(정연태(1999), 위의 글, p.201)

2. 19세기 말 서양인의 동양 인식

서양인에게 동양 사회가 알려진 것은 15세기 말 '지리상의 발견' 시대가 열리면서였다. 이 때 동방 진출의 선두가 된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중국과 일본 나가사키를 오가던 서양 상선이 난파하여 조선에 표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17세기 중엽 이후 네델란드인은 동양 무역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제압하고 패권을 장악하였다. 조선에 표착한 네델란드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박연이었다. 조선에 표박하였을 때 당시 박연은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었다. 박연이 일본, 류큐, 베트남 등지를 여러 차례 다니면서 얻은 견식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때 17세기 이전까지 조선의 존재는 서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듯이 보인다. 조선의 존재를 서양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린 사람은 네델란드인 하멜이다. 기록의 내용은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단편적이거나 잘못된 이해도 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인들은 『하멜 표류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선을 인식하였다. 즉 이 책은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양에서 조선을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지침서가 되었다. 한편 16세기 이후 일본과 중국에 진출한 유럽의 선교사들도 그리스도교를 포교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 입국을 시도하였다.[16]

한편 개항 이전 서양인은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에도(江戶) 시대의 일본은 나가사키(長崎)의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통해서 서양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에도시대에 일본을 방문한 네덜란드인 캠페르(Engelbert Kaempfer)와 쓴베르(Carl Peter Thunberg)는 일본인의 예의바름에 주목했다. 특히 캠페르는 여행 중 여관에서 그들을 대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예의가 바른 민족이라고 하고 있다.[17]

일본의 경우, 일본의 근대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국과 달리 미국의 압력이었다. 1853년 페리가 내항한 해는 유럽에서 터키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크림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다음해 영국, 프랑스 양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여 1856년까지 계속되었다. 1854년 2월 페리함대가 다시 내항하여 가나가와(神奈川)에 정박하였다. 막부는 같은 해 3월 31일 미・일화친조약에 조인하였다.[18]

---

16) 국사편찬위원회 편(2009)『이방인이 본 우리』두산동아, pp.190-194

17) 캠페르는 1651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1690년 일본에 들어와 나가사키에 2년간 머무르면서 네덜란드 상관장을 따라 두 번 에도를 왕복하였다. 한편, 쓴베리는 1775년에서 1776에 일본을 방문하였고, 1776년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도 여행을 하였다. (김미정(2009)「쇄국기 서양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일본관 -캠페르・쓴베리・시볼트의 江戶여행기를 중심으로」『일본언어문화』15, pp.194-195)

18) 유지아(2008)「쇄국과 개국: 일본 근대화 이행과정에 나타난 모순과 변혁」『중앙사론』27, pp.150-153

미정부는 에도정부를 압박하여 1858년 7월 29일, 바쿠후와 미영사인 해리스(Townsend Harris) 사이에 통상조약(해리스 조약이라고도 함)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번에도 화친조약 때처럼 미일통상조약이 체결된 다음 달인 8월에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가, 10월에 프랑스가 바쿠후와 각각 통상조약을 맺었다. 1858년 일본이 서구 5개국과 집중적으로 체결한 위의 통상조약들을 통틀어 안세이(安政) 조약이라고 한다. 일본은 안세이 조약으로 대내외에 완전히 문호개방을 하였다.

한편, 영・일통상조약내용은 미・일통상조약과 동일하지만 세부지침의 일부는 달랐다. 영국대표부가 조약체결 직후부터 에도에 거주토록 할 것과 영국인들은 1862년 1월 1일까지 거주가능토록 할 것, 하코다테, 나가사키, 가나가와는 1859년 7월 1일까지 개항할 것, 영국인들이 개항지로부터 25마일 이내까지 여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 효고와 오사카는 1863년 1월 1일에 개항할 것 등이다.[19]

한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연해에 이양선의 출몰이 잦아졌다. 이양선이 조선 연해에 출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러시아, 독일 선박이 조선 연해를 항해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면 이양선이 처음 출몰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는 주로 조선 연해의 측량과 탐사가 주목적이었던 듯하다. 19세기 전반에는 영국 해군 장교 바실 홀(Bassil Hall)이 이끄는 알세스트호(Alcest)와 리라호(Lyra)가 충청도 마량진 주변의 서해 탐사를 위해 조선 연해를 항해하였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무렵으로 갈수록 그 목적이 달라졌다. 이들은 주로 탐사와 측량이 목적이던 이전의 이양선과 달리 직접 교역을 원하는 상선이 나타났다. 1832년 나타난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상선 로드 암허스트호(Lord Amherst)의 통상 요구에 조선 측은 청의 자문을 얻고 번방으로서 사사로이 교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영국 상선의 통상 요구를 거절하였다.[20]

그러나 지속되는 통상 요구를 조선이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한・영수호통상조약이 1883년에 체결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영국과 맺은 통상조약은 1858년으로 25년 앞선다. 또한 일본이 개항지로부터 25마일, 즉 40킬로까지 영국인의 여행을 허용한 것과 동일하게 한국도 100리, 즉 40킬로미터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전권대신 민영익이 파크스와 함께 상세한 수정을 가한 후 1883년 11월 26일 전문 13조의 한・영수호통상조약(일명 Parkes 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 선후속약에 조인을 완료하였다.파크스에 의하여 체결된 한・영수호통상조약의 내용 중 한미수호통상조약에 비하여 영국 측에 유익한 조항[21] 중 한・영수호통

19) 김현수(2007)「비평 논문 : 주일영국공사 파크스의 대일외교, 1865-68」『영국연구』17, 영국사학회, pp.317-320

20) 국사편찬위원회 편(2009), 앞의 책, pp.200-202

상조약 제14조 6항에 의하면 "영국인은 어떤 통상 지역으로부터든 한국의 리수(里數)로 100리 이내 또는 양국 정부 당국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구역을 여행권 없이 자유로이 갈 수 있다. 또한 여행권을 가지고 여행이나 무역을 위하여 한국 국내를 여행할 수 있되, 각종 상품의 운송 및 판매 또는 토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여행권은 영국영사가 발행하되 한국지방관이 이에 부서(副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2]

흥미로운 것은 커즌이 지적한 대로 1876년 일본이 처음 조약 체결을 종용할 때 일본은 1858년 영・일화친조약 제4조와 제5조의 치외 법권 조항을 자구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다. 또한 영국에 의해 일본에 그 조항이 적용되었을 때 지독하게 불평했던 그 조건들을 조선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적용했다.[23]

박지향은 그의 저서[24]를 통해 일본이 근대성 담론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를 정리하고 있다.

영국은 일본을 1905년 러일전쟁 이전에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때는 일본도 영국 문명을 존재하는 최상의 문명이자 근대성의 표정으로 여겨 흠모하고 배우려 한 시기이다. 반면에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경계하기 시작했고 1차 세계 대전 종전 무렵에는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반감을 갖기 시작하였고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근대성을 초월하여 영 제국을 지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제국주의는 서양의 제국주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영국식 간접 통치보다는 동화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은 한국을 처음부터 극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문명 퇴화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간주하였다. 즉 영국은 문명사회의 척도를 통해 한국을 아프리카나 다를 바 없는 야만국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국은 일제의 식민 통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한국의 자주독립 능력을 인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의 통치가 한국에 좀 더 안정되고

---

21) ① 외교사절과 영사는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고 조선당국은 그들의 여행을 보호할 것(제2조 2항) ② 한국인의 도망범인은 영국관헌이 체포하여 한국 측에 인도할 것이고 한국관헌은 함부로 영국의 상선, 주택에 침입함을 불허한다.(제3조 9항) ③ 부산, 인천, 한성 및 양화진을 영국 상민의 무역에 개항할 것(제4조 1항) ④ 개항장에서 영국 상민은 신교의 자유를 가질 것(제4조 2항) ⑤ 영국 상민은 일정보행구역에서는 여권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으며 또 여권을 가지면 조선국각지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을 것(제4조 6항) ⑥ 영국군함은 개항장 여부를 막론하고 한국 내 어디든지 정박하고 또 선원의 상륙을 허용할 것(제8조 2항)등이다.(姜龍洙(1987)「韓國 開港期 對外通商條約에 관한 硏究」『産經硏究』4, pp.51-53)

22) 위의 글, p.5

23) G.N.Curzon 著, 라종일 譯(1996)『백년 전의 여행 백년 후의 교훈』(Problems of the Far East, 1894), 비봉출판사, p.154

24) 박지향(2003), 앞의 책, 푸른역사

효율적인 행정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25]

외국인 여행기에서 조선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왕국' 등이 있다. 조선이 '은둔국'이라는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는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저서 『은자의 나라, 한국(Corea:the Hermit Nation)』일 것이다. 1882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이 책은 그 초판에서 일본은 은둔하였지만 나라의 문을 열고 세계의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온 나라, 조선은 봉쇄하고 의문에 쌓여 있는 나라로 묘사하며, "일본이 그러한 조선을 개방시켜도 좋지 않은가?"라고 노골적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옹호하였다.[26]

유럽인들은 17세기부터 조선이 '보물섬'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에는 황금이 많고 조선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진주를 채집한다.'는 기록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을 한 사람들은 조선을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19세기 후반에도 반복해서 등장하였다. 물론 일부 외국인은 조선에 광물 자원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커즌 역시 '조선 광산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며 조선 부의 원천은 광산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을 환기시켰다.[27] 그러나 금은보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환상과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독일은 강원도 당현 금광, 러시아는 함경도 광산, 영국은 평안도 은산 금광 채굴 특허권을 이후 확보하였다.[28]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본을 통하여 한국에 접근했던 서양인일수록 이들의 한국관에는 불충분하거나 왜곡된 정보와 동양 사회론의 편견이 작용했을 소지가 컸다는 점이다. 경제의 선진 지대였던 남부지방을 여행한 서양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남긴 기록은 피상적인 소묘에 불과했다. 더욱이 짧은 여행 동안에 흔히 눈에 띄는 부패한 관리의 학정과 사회적 모순만을 보게 될 때는 조선민족의 인간성, 무서운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29]

일반적으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서양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오리엔탈리즘 담론은 동양을 서구 근대 문명의 '타자'로 그리고 문명화되지 못한 미개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문명화의 기독교화, 나아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30]

---

25) 김태웅(2003)「[서평] 박지향, 서평: 박지향의 일그러진 근대 : 100년 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푸른역사, 334쪽)」『歷史學報』180, pp.325-326
26) 이태진(2000)『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pp.136-138
27) G.N.Curzon 著, 라종일 譯(1996), 앞의 책, pp.140-141
28) 국사편찬위원회 편(2009), 앞의 책, pp.244-245
29) 정연태(1999), 앞의 글, pp.201-202
30) Edward W. Said, 박홍규 역(1999)『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참조

그러나 서양인이 모두 불완전한 정보와 편견에 입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손쉬운 단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조사연구를 토대로 조선사회의 실태를 밝히려고 한 서양인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컸던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양인의 한국관의 기본 줄기를 형성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다. 이들이 인식에서 결정적인 한계는 일본의 지도에 의한 타율적 개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 인식에서 주목할 점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도 그 잠재력을 억제하고 상대적 정체를 초래한 요인으로서 국가 정책의 오류, 정치와 사회의 부정부패, 양반 지배계층의 사회 문화적 풍토 등을 구체적 근거에 입각하여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31]

3. 영국인의 일본과 한국 인식

3.1 정치와 군사제도

커즌은 일본의 정치제도는 발 빠르게 서양을 모방하여 그 구성원들도 인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있다.

> 일본인은 특유의 융통성을 십분 발휘하여 서양 의회의 외양적 틀을 수용하는데 성공한 듯하다.[32]

> 새 내각(이토 내각)은 인재들의 총집합체라고 일컬어도 좋을 만했다.…(중략)…나는 수차례에 걸쳐 이토백작, 이노우에 백작, 무쓰 자작과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가졌었다. 한 외국인이 그들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길러낸 국가에 경의를 표한다면 이를 주제넘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33]

'국가에 대해 경의'를 표할 정도로 커즌은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감동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커즌과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했던 비숍은 한국 정치의 가장 위해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지배층의 모순과 부패를 언급했다.

---

31) 김상민(2007), 앞의 글, pp.204-205
32) 위의 책, p.327
33) 위의 책, p.337

> 훌륭한 기후와 적당한 강우와 비옥한 토지가 있어 이들이 내란과 강도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조선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만약' 착취하는 아전과 강제징수 그리고 관리들이 악덕한 음모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토지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법이 불법의 도구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 된다면 조선의 농부들이 일본의 농부만큼 행복하고 부지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는 '만약'이라는 단서가 붙는다.[34]

커즌도 역시 지배층의 부패와 관료주의가 조선을 황폐화시킨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저주스러울 정도로 조선을 황폐화시킨 관료주의는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행 중인 관리는 자신이 묵고 싶은 곳 아무데서나 여장을 풀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식량을 추렴하므로 일반 백성들에게 그는 악몽과 같은 존재이다.[35]

> 청일 전쟁 전까지 조선의 정치형태는 테헤란에서 서울에 이르는 전근대적인 동양 국가들의 공통점인 아시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왕은 궁궐과 궁녀의 신비로움 속에서 내시의 무리, 조정 대신들, 관리들 그리고 가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들끓는 정치 음모의 분위기 속에서 그의 실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관리자들과 관직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계급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수치심조차 없이 백성의 고혈을 빠는 진드기 그 자체였다.[36]

한편 이자벨라 비숍은 아관파천을 목격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의 정치를 서술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역사의 퇴행이었다. 동학을 대신하여 의병이 봉기함으로써 나라는 다시 불안해졌다. 궁내부와 왕의 측근들은 또 다시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매관매직을 시작했다. 누구도 견제하지 않는 이 악습은 가장 악랄한 관습이었다. 방대한 벼슬자리를 움켜쥐고 있는 왕은 공금을 사사롭게 유용했으며,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고 이제는 일본의 간섭도 없게 되자 자기 왕조의 지난날의 폐습으로 복귀했다.[37]

당시 누가 빨리 '근대적' 군대 제도를 확립하는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커즌의 당시 일본 군대에 대한 묘사는 당시 일본의 군대가 유럽에도 위협적인 것이었음을

34) 위의 책, p.328
35) 위의 책, p.76
36) 위의 책, p.125
37) I.B. Bishop 著, 이인화 譯(1994), 앞의 책, pp.355-356

알 수 있게 해 준다.

> 근대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부분은 최근의 전쟁으로 인해 그 위력이 국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일본 군대를 손꼽을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잠재적인 경쟁자와의 군사력 경쟁에서 모든 희생과 노력을 다해 왔다.[38]

> 근대적으로 재정비된 일본 육군의 위용도 해군 못지않게 상당한 수준에 놓여있다.[39]

이상과 같이 근대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부분이 커즌이 보기에도 육군과 해군을 포함한 군대분야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커즌의 한국 군대에 대한 조롱이 눈에 띈다.

> 조선인 장교들은 하잘 것 없는 꼴이었다. 순수한 조선국의 연대들은 상비군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우스갯거리였다. 유럽이라면 조선의 기마병은 어렵사리 지방의 2류 팬터마임극의 단역으로서의 역할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40]

커즌이 보기에 유럽의 군인과 비교하여 조선의 군인은 큰 격차가 있어 보였다.

3.2 거리와 위생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은 토쿄(東京) 거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도쿄 거리에는 전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다니고, 몇몇 간선 도로변에는 가스등이 켜져 있다. 대다수의 공공건물과 정부의 공관 및 귀족의 개인 저택, 일본 지식인의 사교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찻집, 상점에는 가지런하게 전등이 가설되어 있다.[41]

당시 일본은 1853년 개항 이후 한편으로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서구를 모방한 제국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었다.[42]

---

38) 위의 책, p.351
39) 위의 책, p.353
40) 위의 책, p.123
41) 위의 책, p.326
42) 박용희(2009)「19세기 유럽인들의 동아시아 인식」『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동양사학회, p.91

커즌이 외교관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1890년대 초반으로 일본의 경우 이미 메이지 유신이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도쿄거리의 화려함에 대한 묘사와 서울의 비위생인 모습에 대한 묘사는 대조적이다. 커즌은 서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서울의 주민들은 대부분 초가집에서 산다. 이 초가집은 좁고 악취가 나는 작은 길 양켠에 줄지어 서 있다. 그러나 3개의 주요 도로는 좁은 골목들과는 달리 독특한 동양적 대칭을 이루고 있다. 주도로는 하나의 왕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수도를 동서로 가르는 두 번째 도로로부터 남대문에 이르는 길이다. 이 3개의 주요 도로는 폭이 적어도 50야드에 이르며 부드러운 자갈로 덮여 있어서 유럽의 어떤 도시에 가져다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혼잡과 더러움이 눈에 띈다.43)

큰 거리나 좁은 골목의 양측으로 복개 안 된 하수도가 흐르고 있는데, 온갖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이 섞여 있다. 그 덕택에 서울은 더럽고 악취가 난다.44)

> 초가집과 하수 시설의 더러움을 묘사하면서도 자갈로 이루어진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유럽의 어떤 도시에 가져다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하고 있다.
> 한편 비숍은 한국과 일본의 교통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극히 대조적이다. 더욱이 한국은 1894년의 모습이며 일본은 1878년의 모습이다.

> 조랑말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특산물이다. 이 종족은 조선에서 특이한 존재이다.…(중략)…말에 올라타면 그는 매우 착실히 걸어갔으나, 이따금 옆에 동료가 다가오면 그는 재갈과 마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어린 눈으로 하이에나 같은 소리를 내며 동료에게 돌진했다.45)

한국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나오는 조랑말은 가끔 불편할 정도로 말을 듣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교통상황에 대한 묘사에는 기차, 역, 자동차, 전선 등 근대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 도쿄와 요코하마 간에는 기차로 1시간의 여행이었다. 훌륭한 철도로 길이는 18마일. 철교도 있고 정차장도 있으며 종착역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넓다. 이 철도는 영국인 기술자들이 건설한

43) G.N.Curzon 著(1996), 라종일 譯, 앞의 책, p.84
44) 위의 책, p.86
45) I.B. Bishop 著, 이인화 譯(1994), 앞의 책, pp.122-123

> 것으로 1872년에 개통하였다.…(중략)…정차장의 밖에는 인력거가 기다리고 있다. 도로에는 영국제의 차량도 다니고 있었다.46)

그런데 근대적 일본의 도시에도 봉건적 모습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필자가 그려낸 대목이 있다.

> 도로는 몇 마일이나 걸쳐져 세련된 보행자, 인력거, 마부 또는 짐차들로 혼잡스러웠다. 짐차는 타이어가 없는 바퀴를 붙인 것이었다. 이것은 훌륭한 마차도로였지만 마차는 달리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문명화된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의 마부들이 인력거를 끄는 모습은 기묘한 것이었다.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남자는 거의 벌거벗고 여자는 허리까지 벗은 모습으로 인력거를 끄는 것을 보았다.47)

훌륭한 도로가 있음에도 마차는 달리지 않고 있고 대신 벌거벗은 봉건적 인부들이 인력거를 끄는 모습은 '기묘한' 모습이라고 하고 있다. 비숍은 일본이 근대화를 이룩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가 아닌 서구적 근대화의 아류로 구분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일본의 모습에는 여전히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었다.48)

한편 새비지 랜도어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시기는 1890년대 초로 서울의 미관은 볼거리가 없고 청결함도 없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가옥과 청결함에 대해 감탄할 정도라고 하고 있다.

> 도시로서 서울의 매력은 별로 없다. 서울에는 건물이 거의 없고 거리에는 오물이 넘쳐나며 세계 곳곳을 유람하는 여행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명소도 없다. 서울의 도시 미관은 엉망이며 볼거리가 전혀 없다.49)

그러나 일본의 대중목욕 시설에 대해서는 '불결'하다고 평하고 있다. 함께 목욕하는 문화가 없는 서양인에게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 일본인들이 상거래나 식민지화 계획에서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신들의 가옥에 대한

46) イザベラ・バード 著, 高梨健吉 譯(1973), 앞의 책, pp.35-36
47) 위의 책, p.219
48) 金喜永(2007), 앞의 글, p.177
49) A.H.Savage-Landor 著, 신복룡 譯(1999)『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The Land of Morning Calm, London: William Heinemann, 1895), 집문당, 위의 책, p.92

> 청결함과 친절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들이 끓는 물로 매일 목욕하는 습관에 대해 나는 일본인들이 매우 불결한 국민이라고 단정한다. 만약 깨끗한 물로 목욕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아둔한 내 생각으로는 목욕을 아예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열배는 더 청결해 보일텐데 그렇게 더러운 물에서 씻다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50]

한편 비숍은 한국의 숙소에 대한 불편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여행가였던 비숍에게 편안한 숙소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숍에게 편안한 숙소는 제공되지 못했다.

> 조선에는 비정규 여인숙과 정규 여인숙이 있다. 비정규 여인숙은 앞마당에 여물간이 있어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빼고는 길가에서 흔히 보는 오두막이나 다를 바가 없다.…(중략)…그 방에서 두드러진 것이라고는 뜨거운 열기와 해충, 더러운 옷가지들을 담은 독, 간장을 만들기 위해 썩히는 메주, 그 밖의 가구 등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로 줄이는 것들뿐이었다.…(중략)…내가 조선의 여관에서 겪은 악몽은 조선 사람, 특히 여인네의 지나친 호기심과 우악스러움에 있었다.[51]

> 우리는 소란스럽고 불쾌한 여인숙에서 이틀 밤을 보냈는데 사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벌레들이 소름끼칠 정도였다. 더구나 주인은 유숙하는 외국인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즉석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52]

조선에서의 여인숙에 대한 묘사를 통해 온돌, 메주와 같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서양인의 모습과 이러한 서양인을 보는 여인숙 주인들의 호기심과 불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숙박은 한국보다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 우리들의 숙박비는 하루 3실링 미만으로 지금까지 거의 어디를 가더라도 쾌적하게 해 드린다는 마음 따뜻한 배려가 있었고 일본인조차 가지 않는 일반 코스를 벗어난 작고 소박한 마을에 머문 경우가 많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숙박설비는 벌레와 냄새를 빼고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며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와 같이 한적한 곳에 비슷한 숙박설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53]

이와 같이 심지어 작은 마을에서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숙박 설비를 갖추고

---

50) 위의 책, p.124
51) I.B. Bishop 著, 이인화 譯(1994), 앞의 책, pp.125-126
52) 위의 책, p.160
53) イザベラ・バード 著, 高梨健吉 譯(1973), 앞의 책, p.426

있다고 하고 있다.

3.3 여성

비숍은 일본의 여성들이 사회적 굴레와 편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본의 여성들은 모이면 잡담을 일삼는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이를 통해 서양 사회보다 못한 일본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일본의 여성은 독자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실로 동양적인, 실질적이지 못한 말들이 특징인 소문과 잡담이 주로 행해졌다. 표면적인 것에 대해 일본인은 우리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뒤지고 있다. 이 정중하고 근면하게 문명화된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미를 몇 세기에 걸쳐 기독교의 상한 영향을 받아 온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잊어버릴 것만 같다.54)

특히 일본의 기혼여성들이 메이지 유신시기까지 치장을 위해 이를 검게하는 '오하구로(お歯黑)'와 눈썹을 밀고 이마에 눈썹을 그리는 관습이 여성들을 더욱 피폐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

> 딸들은 16세에 결혼하고 곧 이들 아름다운 장미색을 한 건강한 여성이 피곤하여 삶에 찌든 얼굴을 한 중년의 여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를 검게 칠하고 눈썹을 미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55)

그런데 이러한 운명적 속박을 비숍은 사회 체제의 모순에서 찾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스스로의 문제에서 찾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조선의 하급 신분의 여성들이 같은 하급 신분의 일본이나 중국 여성들과 달리 예의가 없으며 조선 여성 스스로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관습에 젖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여자는 결혼으로써 운명이 명백히 결정된다. 조선에서 여성이 독신이란 불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7세부터 아버지의 견고한 굴레에 갇혀 살아오던 소녀는 17세가 되면 시대의 엄한 담장 속에 갇혀 살게 된다. 그것이 관습이다. …(중략)…조선의 여성은 속박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열등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결혼 할 때 애정을 기대하지 않으며 관습을 깨뜨린다는 생각이

54) イザベラ・バード 著, 時岡啓子 譯(2008), 앞의 책, p.429
55) イザベラ・バード 著, 高梨健吉 譯(1973)『日本奥地紀行』東京:東洋文庫, 平凡社, p.130

도무지 들지 않는 것 같다.[56]

조선의 낮은 신분의 여성들은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으며 같은 계급에 속하는 일본 여성의 우아함이나 중국 시골 여성의 과묵하고 친절함이 전혀 없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는 오직 남자들의 옷만을 다루는지 여자들의 옷은 매우 더럽다.[57]

한편 새비지 랜도어는 조선 여성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에서 여성은 노예와 같다. 그는 쾌락과 노역을 위해 이용된다. 그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신의 어떠한 견해도 표명할 수 없으며 자신의 남편 외에 다른 남성을 쳐다볼 수도 없다.[58]

새비지 랜도어는 조선 여성의 삶이 마치 노예와 같아 사회적 지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새비지 랜도어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치장과 체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생김새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은 새비지 랜도어의 직업이 화가였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조선 사람들은 그의 이웃 민족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현명하다. 조선에서는 인위적인 치장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문명화된 일본에서는 여인들이 치아를 검게 칠하고(お歯黒, 오하구로) 눈썹을 밀어내며 대다수의 하류층은 전신에 각종 문신을 하고 있다.[59]

일본인은 양복을 입으면 무척 왜소해 보인다. 어떤 양복도 어울리지 않고 빈약한 체형과 국민전체의 결함인 굽은 가슴과 오자형 다리가 과장되어 보인다.[60]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본 여인들의 치아를 검게 칠하는 '오하구로' 풍습과 눈썹을 밀어내는 풍습이 인위적인 치장을 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보다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문명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왜소한 체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56) I.B. Bishop 著, 이인화 譯(1994), 앞의 책, pp.119-120
57) 위의 책, p.331
58) A.H.Savage-Landor 著, 신복룡 譯(1999), 앞의 책, p.71
59) 위의 책, p.254
60) イザベラ・バード 著, 時岡啓子 譯(2008)『イザベラ・バードの日本紀行』上巻, 講談社学術文庫, p.55

3.4 식생활

비숍은 한국인의 식사량이 많은 것에 놀랐다.

> 나는 중대와 다른 많은 곳에서 조선 사람들이 지극히 대식가라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들은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61]

새비지 랜도어도 한국인이 '대식'을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조선 사람들은 음식을 양껏 먹는다.…(중략)…조선사람들의 게걸스런 식탐의 주된 이유는 그들의 예의 때문이다. 주인은 손님에게 차린 음식에 대해 부족함을 표시해야 하며 손님이 자신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큰 결례로 생각한다.[62]

비숍이 한국인의 '대식'이 포만감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던 것에 반해 새비지 랜도어는 '예의'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하나의 사실에 대해 당시 방문자들의 해석은 서로 달랐다.

한편, 일본과의 식사 문화와 비교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 조선 사람들은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첫 번째 식사는 이른 아침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아주 간소하게 먹는다. 그리고 나서 점심식사는 실속 있는 것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저녁때 하는 만찬인 대식(大食)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선 사람들의 엄청난 식성이 잘 드러난다. 기후가 일본보다 훨씬 춥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들보다 더 육식을 즐기고 살쪄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중략)…어떤 면에서 조선의 식사법은 일본보다는 중국이나 인도와 비슷하다. 내가 본 많은 조선 사람들은 밥을 고기와 생선과 섞은 다음 카레와 같은 진한 양념을 얹어서 비벼 먹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밥을 항상 사발에 따로 담아서 먹는다.[63]

> 조선 사람들은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며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인들의 습관과는 달리 숟가락도 사용한다.[64]

---

61) I.B. Bishop 著, 이인화 譯(1994)『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 1898) 집문당, p.152
62) A.H.Savage-Landor 著, 신복룡 譯(1999), 앞의 책, p.138
63) 위의 책, p.136
64) 위의 책, p.135

새비지 랜도어는 기후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춥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조선의 식사법이 '비벼먹는' 법이기 때문에 사발에 따로 밥을 먹는 일본과 다르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식사할 때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과도 다르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는 체험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식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날 생선을 먹는 식습관에 대한 새비지 랜도어의 설명이 재미있다.

> 일본의 점심식사는 작은 밥상에 놓인 채 나온다. 거기에는 국물, 미역, 밥공기, 날생선이 있었다. 생선은 작게 썰어져서 하나의 큰 잎사귀가 놓인 접시에 놓인 채 나왔다. 이런 종류의 일본 음식에 익숙해져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굉장한 공포에 휩싸인다. 그 참치가 동그란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내 소화기관에 남겨질 것 같은 느낌이다. 모든 생선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음에도 그 가엾은 생명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 "끔찍해!" 나는 외치며 밥상을 떠밀고 역겨움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는 내가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한 것이었다.65)

> (조선의) 저녁식사는 일본과 비슷하게 2-3인치 높이의 작은 상에 차려져 나온다. 생선은 대개의 동양인들처럼 날로 먹는데, 소스와 비슷한 액에 찍어 먹는다는 점이 특이하다.66)

날 생선을 처음 식탁에서 본 외국인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미 동양인의 날생선 식습관을 본 새비지 랜도어는 한국에서 날 생선을 먹는 습관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새비지 랜도어의 일본 음식, 특히 날 생선에 대한 설명에서처럼 일본에서의 음식은 비숍에게도 맞지 않은 듯 보인다.

> 실제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곳에서 외국인을 위한 호텔을 제외하고는 빵, 버터, 우유, 닭고기, 커피, 와인, 맥주를 구입하기 어렵다. 신선한 생선도 드물다. 그러므로 쌀과 차, 달걀을 항상 먹고 때때로 맛이 없는 신선한 야채류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식량을 휴대하여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날 생선과 야채 요리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혀로 삼켜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오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67)

---

65) Arnold Henry Savage-Landor, *Alone with the hairy Ainu: Or, 3800 miles on a pack saddle in Yezo and a cruise to the Kurile islands,* London : John Murray, 1893, p.21

66) 위의 책, p.137

67) イザベラ・バード 著(1973), 高梨健吉 譯, 앞의 책, p.426

비숍이 1878년도에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당시 일본에서 외국 음식을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당시에 '외국인을 위한 호텔'도 존재하였으며 그곳에서 빵, 버터, 우유등과 같은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3.5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외인식

비숍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서술을 하고 있다. 특히 전근대 역사에서 조선은 '중국과 일본에 의존해 왔으며' 임진왜란 이후 조선인의 마음에 적대감이란 유산이 남겨져 왔다고 하고 있다.

> 조선은 수세기에 걸쳐 명맥을 이어온 이씨 왕조에 의해 지배되었지만, 서기 이래 많든 적든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중략)…그 후(임진왜란 이후) 3백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자존심의 상처와 민족적 적대감이란 유산이 남겨졌다. 반면에 일본은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고 생각한 속국이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하였다.[68]

이와 같이 조선이 일본의 '속국' 형태로 존재했다는 역사적 오류는 커즌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 일본의 잠정적인 후퇴(임진왜란) 후 양국 간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1618년에 조선은 일본에 조공 사절을 보냈다. 그리고 1625년에는 이예미쓰가 조공의 재개를 요구했다. 그로부터 1637년 조선이 중국에 완전히 복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 사절은 일본의 경비로 일본의 자존심을 추켜세워 주기 위해 매년 도쿄를 방문했다.[69]

커즌은 조선통신사를 조선이 일본에 보낸 '조선 사절'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커즌이 본 역사서적류가 일본 측 입장에서 된 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커즌의 한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살펴보면 개항 후 일본과 맺은 조약들의 불평등성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이 눈에 띈다.

---

68) G.N.Curzon 著(1996), 앞의 책, pp.149-150
69) 위의 책, p.150

> 일본은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으로 상업적・재정적 패권 정책을 추구했다. 무기력하기만 한 조선인과 비교하면 일본인은 활동적이며 경제적이다.…(중략)…그러나 정책의 위험성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인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민족적 질시였다. 전쟁 전의 일본인은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허황된 민족적 우월감과 과거의 경험적 타성으로 인해 협박하고 호령하는 기질을 갖고 있었다. 사실 일본 내에서 일본인들이 서구 조약국에게 극도로 민감하게 조약의 가혹성에 분개하고 시위를 벌이는 것과, 조선에서 최초의 조약국인 그들이 조선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불행한 조선을 무자비하게 지배하려 드는 태도나 조약이 허용하는 아주 작은 이권마저도 빠짐없이 챙기려는 태도를 비교하여 보면 매우 흥미롭다.[70]

한국인과 일본인의 민족적 질시, 일본인의 민족적 우월감과 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 최근의 연구 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을 하고 있는 점은 놀라운 점이다.

커즌은 조선을 여행한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이 조선을 여행하는 데 얼마나 곤란을 겪고 있는 지 설명하고 있다. 서울 안에 있는 외국인 거리를 묘사하고 이들이 조선인에게 눈에 띌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 조선 내륙을 여행하려면 관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이방인으로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짐을 나를 가축이나 음식, 잠자리 등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외무 관청은 '관초'라고 알려진 서류를 발행해 주는데, 그것을 패용한 사람은 관의 안내와 나귀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관원들이 사용하는 여인숙이나 관아에서 숙박을 할 수 있으며 횃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71]

> 서울 안에는 눈에 띄는 몇 개의 언덕이 솟아 있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이 조선인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72]

한편, 일본은 외국인에게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일본이 따라가야 할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의 단점에 대해서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일본은 유럽이 문명의 발달 단계에서 또 지식의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 가고 있음을

70) 위의 책, p.154
71) 위의 책, p.60
72) 위의 책, p.86

> 인정했다.…(중략)…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자신이 모방하려는 대상에 대해 무차별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서양인을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우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유럽의 우수한 면들을 모방하면 할수록 유럽적인 결점에 대해서 더욱 비판을 가하게 되었다.[73]

그래서 당시 외국인과 일본인간의 충돌 사건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 수도에서 오래 살아 잘 알려진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공개적인 수모를 당했으며, 일본 경찰은 이를 막아주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한 예는 일본 제품이 품질 면에서 매우 열등한데도 경쟁 상대인 외국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인 사건이다.[74]

일본 경찰의 외국인 수모에 대한 방관, 일본인의 애국심으로 인한 외국 상품 불매 운동 등 일본인의 서양인에 대한 태도가 결코 당시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안세이 조약 이후 외국무역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궁핍해진 하급 무사 계급이 반외세를 부르짖으며 서구 외교관들을 위협했다. 그해 8월에 러시아사관 1명과 수병 2명이, 이듬해인 1860년에는 네덜란드 상인이 살해당했고, 1861년 봄에는 미국영사 해리스의 개인비서가 에도 거리에서 살해당하기도 하였다.[75]

4. 영국인 인식 속의 오리엔탈리즘

영국인 3인은 오리엔탈리즘에서 동양국가를 '타자'로 삼는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여행가들은 단순히 여행지에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이 여기에 반드시 관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이들 3인이 일본과 한국의 문화를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떠나 개인적인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고 있는 증거들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와 군사제도'에 나타나 있는 조지 커즌과 이자벨라 비숍의 오리엔탈리즘을 정리

73) 위의 책, p.358
74) 위의 책, p.359
75) 김현수(2007), 앞의 글, p.321

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정치와 군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조지 커즌	・일본인은 특유의 융통성을 십분 발휘하여 서양 의회의 외양적 틀을 수용하는데 성공한 듯하다.[76] ・청일 전쟁 전까지 조선의 정치형태는 테헤란에서 서울에 이르는 전근대적인 동양 국가들의 공통점인 아시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77]
이자벨라 비숍	・방대한 벼슬자리를 움켜쥐고 있는 왕은 공금을 사사롭게 유용했으며,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고 이제는 일본의 간섭도 없게 되자 자기 왕조의 지난날의 폐습으로 복귀했다.[78]

외교관이었던 커즌은 서구의 '서양 의회의 외양적틀'이 일본적인 정치 제도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서양의 제도를 흡수하는 것이 빠른 일본을 영국이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양 국가들의 공통점인 아시아적 특성'을 왕을 중심으로 부패한 각료들이 백성의 고혈을 짜는 정치체로 보고 있다.

이자벨라 비숍 역시 아관파천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를 당연한 귀결로 보고 일본에 대한 간섭이 없어진 왕을 무능하게 바라보고 있다. 조선의 독립과 주권은 관심밖에 있고 서양적인 정치제도를 먼저 완성해가고 있는 일본을 조선의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후 일본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조선인들은 일제의 군용 철도 운행을 방해하거나 보안회를 결성하여 일본의 토지 침탈에 항거하였으며, 유생들은 의병운동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적 행위와 수탈을 개혁으로 호도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미화하였다.[79]

두 사람의 일본과 조선에 대한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은 일본 정치의 조선 정치에 대한 우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양의 정치제도가 동양의 정치제도보다 우월하다는 '타자' 인식을 공통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커즌은 일본의 내정 개혁 개입을 "마치 거부하는 환자에게 먹기 싫은 약을 강권하는 의사의 직업적인 성실성에 비유될 만한

76) G.N.Curzon 著(1996), 라종일 譯, 앞의 책, p.327
77) 위의 책, p.125
78) I.B. Bishop 著(1994), 이인화 譯, 앞의 책, pp.355-356
79) 이지은(2006)『왜곡된 한국 외로운 한국』책세상, pp.263-282

성격”[80]이라고 치켜세우고 노골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일본 방식대로 통치한다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관이자 열렬한 제국주의자였던 커즌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옹호하였던 것은 영국의 러시아 남하 정책 저지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훌륭한 소형 함대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피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부의 다양한 잠재적 차원을 물려받은 풍요로운 조선이 만일 적대국(러시아)에 의해 점령된다면 중국 해전 해상과 심지어 태평양에서조차 영국의 상행위와 이해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81]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82]

당시 제국주의의 선봉인 영국의 국민으로서 일본과 조선의 정치제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우월의식과 동양적 정치제도에 대한 몰이해는 당시 이 두 사람의 양국에 대한 긍정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고질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로 ‘거리와 위생’ 항목에 나타나 있는 이들의 오리엔탈리즘과 그 외 다양한 인식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거리와 위생’에 대한 인식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조지 커즌	・서울의 주민들은 대부분 초가집에서 산다. 이 초가집은 좁고 악취가 나는 작은 길 양켠에 줄지어 서 있다.……이 3개의 주요 도로는 폭이 적어도 50야드에 이르며 부드러운 자갈로 덮여 있어서 유럽의 어떤 도시에 가져다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83]
새비지 랜도어	・도시로서 서울의 매력은 별로 없다.[84] ・일본인들이 끓는 물로 매일 목욕하는 습관에 대해 나는 일본인들이 매우 불결한 국민이라고 단정한다.[85]
이자벨라 비숍	・이 철도는 영국인 기술자들이 건설한 것으로 1872년에 개통하였다.[86] ・그 방에서 두드러진 것이라고는 뜨거운 열기와 해충, 더러운 옷가지들을 담은 독, 간장을 만들기 위해 썩히는 메주, 그 밖의 가구 등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로 줄이는 것들뿐이었다.[87]

80) G.N.Curzon 著(1996), 라종일 譯, 앞의 책, p.409
81) 위의 책, p.173
82) 국사편찬위원회 편(2009), 앞의 책, p.256
83) 위의 책, p.84
84) A.H.Savage-Landor, 앞의 책, p.92
85) 위의 책, p.124
86) イザベラ・バード 著(1973), 高梨健吉 譯, 앞의 책, p.35
87) I.B. Bishop 著(1994), 이인화 譯, 앞의 책, p.126

‘거리와 위생’에 대한 이들의 시각에서도 오리엔탈리즘은 여실히 나타난다. 유럽적인 것을 우월한 것으로 보는 예로는 조지 커즌이 ‘유럽 어떤 도시에 가져다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한 한국 도로에 대한 표현이다. 또한 이자벨라 비숍은 ‘일본의 철도를 영국인 기술자가 건설하였다’라고 자신감 있게 사실을 적고 있다.

새비지 랜도어가 ‘서울의 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한 것에 비해 프랑스인이었던 샤를 바라는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뜻 보아 ‘비참하고 처량하고 가난해 보이는’ 도시도 베일을 걷어 내고 꼼꼼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민속학자였던 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무척이나 붐벼 보이는 한양 거리는 민속학적 자산의 보고였다.[88]

조지 커즌은 조선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을 ‘좁고 악취나는’ 것으로 묘사했고 이자벨라 비숍은 한국인의 메주를 담는 풍속을 조롱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여행객도 있었다.

겐테는 우선 중국인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인이 청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인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반면 조선은 유럽의 마을이나 소도시들이 본받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흰옷을 즐겨 입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89]

한편 새비지 랜도어도 일본인들의 더러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을 불결한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덥고 습한 기후이며 온천욕을 좋아하고 집에서는 쉽게 물을 데울 수 없는 일본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드러나는 오리엔탈리즘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4> ‘여성’에 대한 인식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새비지 랜도어	・조선에서 여성은 노예와 같다. 그는 쾌락과 노역을 위해 이용된다.[90] ・문명화된 일본에서는 여인들이 치아를 검게 칠하고(お歯黒, 오하구로) 눈썹을 밀어내며 대다수의 하류층은 전신에 각종 문신을 하고 있다.[91]
이자벨라 비숍	・일본의 여성은 독자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실로 동양적인, 실질적이지 못한 말들이 특징인 소문과 잡담이 주로 행해졌다.[92] ・밤새도록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는 오직 남자들의 옷만을 다루는지 여자들의 옷은 매우 더럽다.[93]

88) 샤를 바라・・샤이에 롱, 성귀수 역(2001)『조선기행』눈빛, p.295(사를 바라는 프랑스의 여행가로 지리학자이자 민속학자이다. 조선에 대한 그의 기록은 1888년부터 1889년에 걸친 여행의 산물이다.)

89) 지크프리트 겐테, 권영경 역(2007)『신선한 나라 조선, 1901』책과 함께, p.128(지크프리트 겐테는 지리학 박사이자 쾰른 신문사 기자였다. 그가 조선을 방문한 것은 1901년 6월로 이후 11월 초까지 약 반년동안 조선에 주재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법치주의는 유럽인에게 문명과 문화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과 조선 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여성은 억압과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마치 노예와 같이 어떤 법적 지위도 지닐 수 없는 존재로 보였다. 또한 새비지 랜도어가 보았을 때 비문명의 상징으로 보이는 '오하구로'의 풍속은 유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개'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자벨라 비숍이 일본 여성의 모임을 표현할 때 '동양적인=실질적이지 못한' 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 여인들의 빨래의 마무리 작업인 다듬이질은 외국인 여행가들에게 이국적인 모습이었다. 비숍은 조선의 여인들을 '빨래의 노예'라고 하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였다.[94] 같은 시기 조선을 방문한 로웰은 조선 사람들이 흰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는 것에 무척 회의적이었으나 조선식 세탁법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더러운 물에 빨랫감을 문지르고 조그마한 둥근 막대로 두드려 결국은 깨끗하게 해 놓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95]

네 번째로 '식생활' 에 대한 인식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4> '식생활'에 대한 인식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새비지 랜도어	・조선 사람들의 게걸스런 식탐의 주된 이유는 그들의 예의 때문이다.[96] ・생선은 작게 썰어져서 하나의 큰 잎사귀가 놓인 접시에 놓인 채 나왔다. 이런 종류의 일본 음식에 익숙해져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굉장한 공포에 휩싸인다.[97]
이자벨라 비숍	・나는 중대와 다른 많은 곳에서 조선 사람들이 지극히 대식가라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들은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98]

90) A.H.Savage-Landor 著(1999), 신복룡 譯, 앞의 책, p.71
91) 위의 책, p.254
92) イザベラ・バード 著, 時岡啓子 訳(2008), 앞의 책, p.429
93) 위의 책, p.331
94) I.B. Bishop 著(1994), 이인화 譯, 앞의 책, p.60
95) 퍼시벌 로웰, 조경철 역(2001)『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예담, p.250(퍼시벌 로웰은 미국인으로 일본에서 주일 외국 대표로 10년간 체류하였다. 미국 보빙사의 안내자 역할을 했고 1883년 12월 보빙사 일행과 조선땅을 밟았다.)
96) A.H.Savage-Landor 著(1999), 신복룡 譯, 앞의 책, p.138
97) Arnold Henry Savage-Landor, *Alone with the hairy Ainu: Or, 3800 miles on a pack saddle in Yezo and a cruise to the Kurile islands,* London : John Murray, 1893, p.21
98) I.B. Bishop 著, 이인화 譯(1994)『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 1898) 집문당, p.152

새비지 랜도어나 이자벨라 비숍 모두 조선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의'때문이든 '포만감'때문이든 게걸스런 식탐과 게으름으로 비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새비지 랜도어가 날 생선을 먹는 일본의 식생활을 '공포'로 표현하고 있는 점도 타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벨라 비숍이 한국의 음식문화를 일본과 달리 '비벼먹는' 것으로 보고 '숟가락' 사용을 특징으로 보고 있는 것은 면밀하고 객관적인 관찰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외인식'을 바라보고 있는 영국인의 오리엔탈리즘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5>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외인식'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조지 커즌	· 1618년에 조선은 일본에 조공 사절을 보냈다.[99]
이자벨라 비숍	· 조선은 수세기에 걸쳐 명맥을 이어온 이씨 왕조에 의해 지배되었지만, 서기 이래 많든 적든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100]

조지 커즌이 말하는 조선이 일본에 보낸 '조공 사절'은 조선통신사를 일컫는다. 조선통신사는 간단한 조공 사절이 아니었다. 통신사는 일본의 막부 장군이 바뀔 때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축하사절의 이름으로 파견되었으며, 대략 4~5백 명의 통신사 일행을 맞이하는 데 1,400여 척의 배와 1만 여명의 인원이 일본 측에서 동원대고 그 접대비로 한 주의 1년 경비를 소비할 정도로 성대하였다.[101] 조선이 일본에 의존하였다는 이자벨라 비숍과 인식을 같이 하는 조지 커즌의 한·일 관계 인식은 현재의 조선이 열등하므로 과거의 조선도 그러하였으리라는 잘못된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마치며

19세기말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대외적인 진출을 통해 해결하려던 서양의 제국주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진출에 가장 앞장섰던 국가는 빅토리아의 전성기를

99) 위의 책, p.150
100) G.N.Curzon 著(1996), 앞의 책, pp.149-150
101) 한영우(2008)『다시 찾는 우리 역사』경세원, pp.374-375

찾으려하던 영국이었다.

오랫동안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던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개항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서양적 '근대'에 직면할 기회를 잃었다. 반면 일본은 쇄국정책을 근간으로 하던 에도시대부터 나가사키 개항을 통해 서양 문물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었고 비록 미국에 의한 개항이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문물 수용을 통해 보다 빨리 서양적 '근대'를 이루고 있었다.

미국에 의해 개항된 일본에 제일 먼저 화친조약을 요구한 것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통상조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에 의해 개항을 하게 된 조선에서도 미국에 이어 영국이 화친조약을 맺게 되고 치외 법권과 최혜국 조항이 있는 불평등 조약체계를 맺게 된다.

당시 한국과 일본 양국을 방문한 커즌, 새비지 랜도어, 비숍 3인의 영국인이 남긴 기록물을 통해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 일본의 모습을 체험적으로 묘사해 낼 수 있었다.

이들이 방문했던 시기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빠른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교통, 숙박, 도로의 모습, 군대, 수도의 발달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해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이 시기 서양인과 일본인은 이미 대결 구도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은 서구의 근대성을 쫓아가려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 조약을 맺은 서양을 비판하고 척결하려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속박과 벌거벗은 인부들의 모습 등 전근대적인 모습도 남아있는 사회였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국은 '나약하고', 관료적 체제가 부패하여 있으며 군대는 조롱당할 만큼 볼품없는 것으로 서양인의 눈에 비친 '근대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영국인 3인은 오리엔탈리즘에서 동양국가를 '타자'로 삼는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는 열등한 '타자'일 뿐이었다. 조지 커즌은 영국의 외교관이었으므로 일본과 조선의 문화 방면보다는 정치와 군사제도에 더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서양의 의회제도와 같은 정치제도는 우월한 것으로, 그것을 따르는 일본은 '미개'한 조선보다는 뛰어나나 역시 서양의 아류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새비지 랜도어나 이자벨라 비숍은 여행자라는 직업의 특성 상 일본과 조선의 문화적인 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자세하고 면밀한 관찰을 통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그들이 속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그들이 본 '날 생선을 먹는' 일본과 조선의 식생활은 미개하였고 '인력거'는 문명과 맞지 않는 여전한 봉건적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자벨라 비숍과 같이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물며 인식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의 같은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에서 오리엔탈리즘과 동양을 보는 다양한 인식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參考文獻】

G.N.Curzon 著, 라종일 譯(1996)『백년 전의 여행 백년 후의 교훈』(Problems of the Far East, 1894), 비봉출판사
A.H.Savage-Landor 著, 신복룡 譯(1999)『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The Land of Morning Calm, London: William Heinemann, 1895), 집문당
I.B. Bishop 著, 이인화 譯(1994)『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 1898), 집문당
국사편찬위원회 편(2009)『이방인이 본 우리』두산동아
박지향(2003)『일그러진 근대:100년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푸른역사
샤를 바라・・샤이에 롱, 성귀수 역(2001)『조선기행』눈빛
이지은(2006)『왜곡된 한국 외로운 한국』책세상
이태진(2000)『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지크프리트 겐테, 권영경 역(2007)『신선한 나라 조선, 1901』책과함께
퍼시벌 로웰, 조경철 역(2001)『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예담
한영우(2008)『다시찾는 우리 역사』경세원
姜龍洙(1987)「韓國 開港期 對外通商條約에 관한 硏究」『産經硏究』4
金淇烈(1983)「韓英修交의 成立과 그 背景」『英美文化』12, 檀國大學校英美文化硏究所
김미정(2009)「쇄국기 서양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일본관-캠페르・쓴베리・시볼트의 江戶여행기를 중심으로」『일본언어문화』15
김상민(2007)「개화.일제기 한국 관련 서양 문헌에 나타난 한국 인식 양태 연구」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수(2007)「비평 논문 : 주일영국공사 파크스의 대일외교, 1865-68」『영국연구』17, 영국사학회
金喜永(2007)「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 :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경주사학』26, 경주사학회
김태웅(2003)「[서평] 박지향, 서평: 박지향의 일그러진 근대 : 100년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歷史學報』180, 푸른역사
박용희(2009)「19세기 유럽인들의 동아시아 인식」『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동양사학회
박지동(1999)「英・美・日의 아시아 침탈과 민중 학살사 재고찰」『社會科學硏究』9
박지향(2001)「'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안과 밖』10, 영미문화연구회
오정우(2012)「韓末 朝鮮의 對英修交 考察」『전북사학』40
왕한석(1999)「개항기 서양인이 본 한국문화: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4
유지아(2008)「쇄국과 개국: 일본 근대화 이행과정에 나타난 모순과 변혁」『중앙사론』27
정연태(1997)「지향으로서의 근대와 실재로서의 근대」『역사비평』36
_____(1999)「19세기 후반 20세기초 서양인의 한국관-상대적 정체성론・정치사회 부패론・타율적 개혁불가피론-」『역사와 현실』34
平川祐弘(1996)「日本 幕末維新時代의 文明모델의 전환 : 古代中國에서 近代西洋으로」『日本硏究』11
イザベラ・バード 著, 高梨健吉 訳(1973)『日本奥地紀行』東京:東洋文庫, 平凡社
イザベラ・バード 著, 時岡啓子 訳(2008)『イザベラ・バードの日本紀行』講談社学術文庫
A.H.Savage-Landor, Alone with the hairy Ainu: Or, 3800 miles on a pack saddle in Yezo and a cruise to the Kurile islands, London : John Murray, 1893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메이지(明治) 초기 영국인이 본 일본과 한국

－조지 커즌, 새비지 랜도어, 이자벨라 비숍을 중심으로－

메이지(明治) 초기 일본은 경제적인 위기를 대외적인 진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서양의 제국주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의 양국을 방문한 George Nathaniel Curzon, Arnold Henry Savage Landor, Isabella Bird Bishop 3인의 영국인이 남긴 기록물을 통해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의 초반 일본의 모습을 체험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의 비교도 심층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방문했던 시기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 숙박, 도로, 군대, 정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인 속박과 굴레의 모습과 같은 전근대적 모습도 남아있는 사회였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약하고' 관료적인 체제가 남아있고 군사체제도 약한 나라였다. 서양인의 눈에서 본 한국은 '근대성'이 거의 없었다.

이 논문에서의 영국인 3인은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동양국가를 '타자'로 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 없을 지도 모르지만, 일본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 Study on English Perception of Japan in the Early Meiji Period

－Focused on George Nathaniel Curzon, Arnold Henry Savage Landor, Isabella Bird Bishop－

Japan in the early Meiji Period confronted on Imperialism of Westerners which planed to solve their crisis of economy through the foreign entry.

The state of Japan in the late 1880s and early 1890s can be described as experiential through the records left by the British such as George Nathaniel Curzon, Arnold Henry Savage Landor, Isabella Bird Bishop who visited in Japan. In addition, the comparison with Korean situation at that time can be researched more easily with this work.

Japan was pushing into modernization through Meiji Restoration when these three English people visited in Japan. As a result, the conditions of the transportation, the accommodation, roads , the military system, politics were better than Korea at that time. But the appearance of women as a social figure was remained as a pre-modern society.

While Korea was 'weak' and the bureaucratic system was still remained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it was a weak country in the military system . Korea was seen in the eyes of Westerners as a non-modernity country.

Although the perception on Japanese culture of the three English people in this paper may not be able to be completely far from the Orientalism which made oriental countires 'others', they recognized Japan with a wide range of perception.